

제10강 불교에서의 존재와 자살에 관한 토의

(1교시)

◆불교에서의 존재

※학습목표: 마음의 작용과 연기를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를 다시 살피고, 불교의 자살에 대해 알아본다.

▲마음과 마음작용

-마음은 心/mind이고, 마음작용은 心所/mental formation이다.

-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나/자아/인식주체다. 마음작용은 경험이다. 불교에서는 경험이 곧 존재이다. 이는 마음과 마음작용이 항상 동시에 사라지고 동시에 생긴다는 뜻이다.

-나에게 경험이 있을 때, 동시에 내가 같이 생긴다. 그 다음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과 함께 새로운 내가 생긴다.

-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본다면, 無我是 多我다. 열반은 이런 무아/다아가 끊임없이 같이 가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경험이다. 그리고 사라지고 나타남의 연속적 관계를 연기적 관계라고 한다.

-전후 생성이 독립적인 단멸론이 아니라, 하나의 인과적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. 즉 불연속적인 연속이다.

▲연기(緣起)

-애초에 불교에서 연기법은 시간적 연기개념이었다. 전 찰나와 그 후 찰나 간에 연기적 관계/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. 그것이 12연기이고, 12연기는 앞, 뒤, 전, 후 경험 간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.

-연기를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부터다. 연기의 공간적 파악은 A가 있어서 B가 있다는, 그래서 A와 B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있다는 것이다. 여기서 공간이란 개체와 개체가 떨어져 있는 관계를 말한다.

▲자살과 종교

-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 층에서만 이야기한다. 그런데 실상은 거꾸로다. 상식적인 삶이 먼저고, 그 다음 이론적인 것이 만들어진다. 이와 관련해서, 불교의 추상적인 것만 보고 불교에서 자살을 권장한다는 것은 곤란하다.

-어떤 종교도 자살을 방조하거나 권장할 수 없다. 다만 여기서 철학적으로 자살이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다. 그 측면을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.

-선정의 상태에 죽는 이야기가 있다. 이는 안락사나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. 오히려 무아가 깨닫기 위한 절대적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.

(2교시)

◆자살에 관한 토의 -1-

※학습목표: 자살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해보자

▲토의 내용 요약

-자살은 권리다.

-권리라 하기에 자살은 무책임하다. 자살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이다. 해결에 대한 노력이 아닌 회피로 볼 수 있다.

-출가도 회피라는 의미에서 죄가 되나?

-출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지만, 자살은 그렇지 않다.

∞

-자살에는 이타적 자살도 있다. 자살이 옳다 그르다는 개인의 의지를 벗어난다. 개인의 의지가 아닌 환경/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.

∞

-자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다.

∞

-불교에서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한다. 자살을 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자살한다.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면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오히려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말이다.

-불교의 열반은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,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? 윤회는 죽음의 삶이다. 우리가 열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른다. 고통은 삶의 조건인가?

-자살로 이르도록 설득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의무냐 아니냐를 말한다면 미망이다. 불교적 접근은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. 불교가 자살의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지는 않는다.

∞

-삶은 권리인가 의무인가?, 또 자살은 권리인가 의무인가?

-권리에는 크기가 있다. 생명이 인간의 권리인데, 자살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. 그렇다면 천부적인 인권의 포기다.

-생명권과 인권의 문제다. 공리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자신이 살려는 인간만 인권이 있다고 한다. 반대로 고대 형이상학의 세계관이 강한 곳에서는 모든 생명에 인권이 있다고 본다.

∞

-이타적 자살과 허무주의 속의 자살은 확연히 구분된다.

∞

-여러 가지 자살이 있다. 스토아학과처럼 자기 절제의 상징으로 택하는 사람도 있고, 미학적 의미의 자살도 있다. 또한 정신 병리학적으로 볼 때, 자살은 전부 남에 대한 punishment다. 그러나 황진이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 이렇듯 여러 자살이 있으며, 삶을 완성하기 위한 자살도 있다

∞

-사회에 대한 punishment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나 자살을 권리로 놓는다면, 장려

할 수도 있게 된다.

-어디까지가 순교이고 열사인지 모르겠다. 다만 죽음을 사회적/역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.

∞

-자살에 이타적이란 형용사를 붙일 수 없다. 일종의 쇼이다.

(3교시)

◆자살에 관한 토의 -2-

※학습목표: 자살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해보자

▲토의 내용 요약

-자살을 가치문제로 겹쳐 놓은 것 같다. 자살과 가치를 연결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.

∞

-실제 자살 하는 사람의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. 선택에 여지가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.

-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선택한 것이 아닌가?

∞

-생명을 능가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전에 자살이 인정될 수 없다.

-대부분의 자살은 고통이 생물학적인 것을 넘었을 때, 자신의 존엄성을 넘었을 때 발생한
다.

-일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것이 아니다. 오히려 그 이전에 판단을 정초할 수 있
는 근거를 말한다. 인권과 자살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자살을 줄일 수 있지
않을까? 그리고 최소한이지만 자살을 권리로 볼 수도 있다.

-불교에서는 자살을 하나의 폭력으로 본다.

∞

-살아있어도 살아있지만 못한 경우가 있다. 이때의 자살도 자살이라 할 수 있는가?

-내가 선택할 수 없는 패러다임 안에 있다. 내가 만든 것이 없다는 가운데 내가 주울 권리
는 있는가?

-그렇게 되면 살 권리도, 다른 권리도 가질 수 없다.

∞

-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경우 자살을 할 수 있다고 본다. 안락사의 경우가 그렇다.

-대부분의 안락사는 일반적인 자살과 다르다.

-똑같은 관계망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는가?

-그렇다고 완전히 자의적이진 않다.

∞

-완전한 자의식은 아니지만, 자의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한다.

-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야 한다.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개인으로도 보이고 사회로도 보이는
것이지, 그 중 무엇가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 자살을 하고 말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
라고 생각한다.

-자살은 여러 측면으로 나뉘고, 의무면서 동시에 권리다.

∞

-죽음은 권리다. 하지만 권리를 언제나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. 죽음을 택할 수 있는데도 택
하지 않고 사는 것은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.